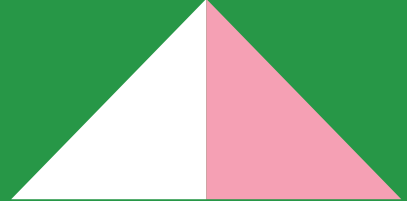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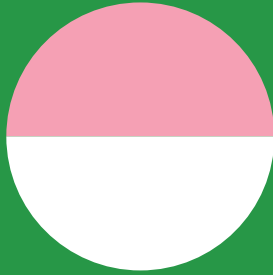


발간번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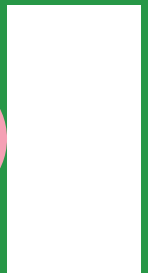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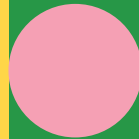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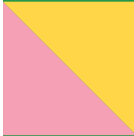
MYF23-16-개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역별 현황과 지원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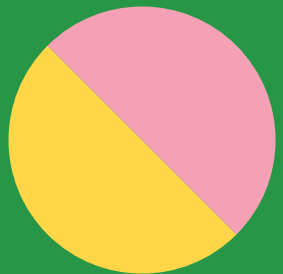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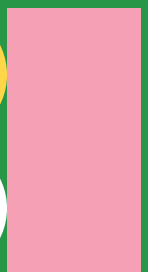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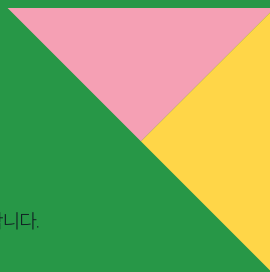
2023.12월

vol. 9



924

「이주배경924」는
이주배경을 가진 9세부터 24세의
청소년과 관련된 이슈를 모아 발간합니다.



ISSUE BRIEF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청소년복지원법 제18조에 따라 포괄적 범주의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 관련
최근 이슈, 현장 사례 등을 파악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과제를 발굴·제안하고자
2021년부터 「이주배경924」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 「이주배경924」에 담긴 글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필자의 소속 기관 혹은 재단의 공식적인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차

1. 이슈 발굴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과제	04
김현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10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14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남지역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방안	20
김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	

2. 현장 리뷰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네트워크	26
서원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차장	
용산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	30
곽윤정 용산교육복지센터 팀장	
지역자원 연계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36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슈 발굴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과제

김현숙 |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김이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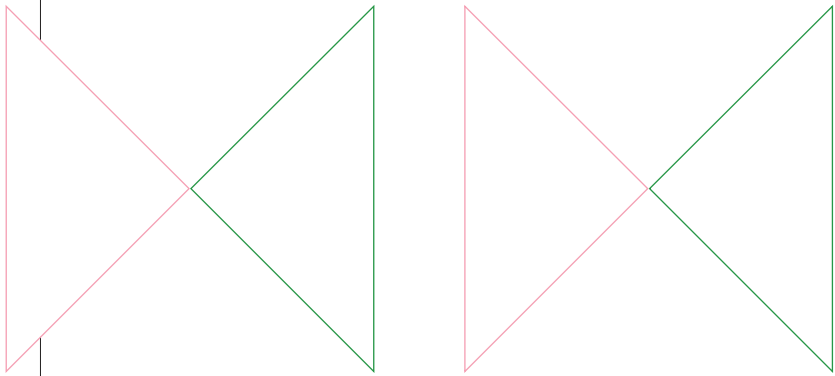
윤향희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전남지역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방안

김경주 |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과 과제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세계화 물결 속에 국제이주는 전 지구적 현상이 되었고,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가속화하던 국제이주는 코로나19로 급감하면서 향후 국제이주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다. 자발적 이주가 멈췄던 것은 사실이지만, 국제사회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은 사람들을 계속 이동하게 하였다. 코로나19의 종식 선언 이후 사람들은 다시 움직이고 있다. 그동안 감소하였던 국내 체류 외국인도 2023년 현재 2019년 수준인 250만 명으로 되돌아갔다. 한국 인구의 약 4%에 해당한다. 우리는 향후 더 다양해진 이주민, 이주배경청소년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은 본인 혹은 부모가 국경을 넘는 이주 경험을 가진 만 9세부터 24세 연령에 속한 사람으로 정의되지만, 우리는 다문화 학생, 다문화청소년, 외국인 주민 자녀 혹은 외국인 주민 등 여러 명칭으로 부르고 있다.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통계 역시 복잡하다. 외국인 주민 자녀^①는 18세까지 귀화 및 외국 국적자, 국내출생자를 포함하는데, 소위 다문화가정으로 불리는 다문화가구 자녀와 유사하다. 따라서 이 연령대에 노동, 학업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홀로 이주한 청소년의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으로 파악되기보다 다른 체류 자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의 확인이 쉽지 않다. 한편 본인이 외국인이거나 외국인가정의 자녀를 포함하는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② 통계는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 미등록으로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용어나 통계의 복잡함은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파악, 발굴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 ①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자녀로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②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은 국제결혼가정의 국내 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와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분류한다.

김현숙, 숙명여대 정치외교학과 강사
숙명여대, 가천대에서 이주, 인권, 여성정치, 민주주의 강의를 하며
인권, 이주배경청소년, 이주민 연구를 하고 있다.
✉ k9402011@sookmyung.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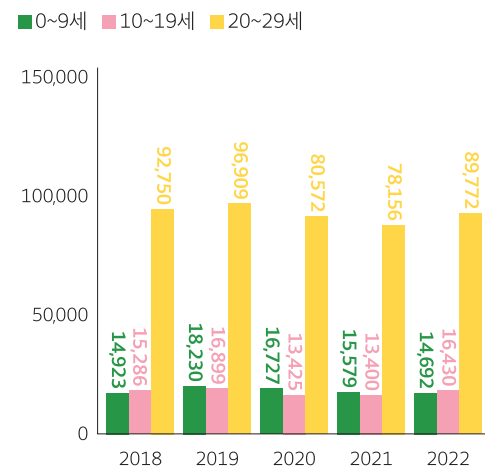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의 대략적 규모는 연령별 외국인 주민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발표되는 통계는 10년 단위여서, 이주배경청소년에 해당하는 9~24세 외국인 주민의 정확한 수치 파악도 쉽지 않다. 서울시의 0~19세 외국인 주민은 2018년 3만 209명에서 2019년 3만 5,12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부터 감소하였다. 2022년에 2018년 수치를 회복하였지만, 20대 서울시 외국인 주민은 하락세가 커서 2018년 수준으로 돌아가지 못하였다.

외국인 주민자녀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국내출생과 귀화 및 외국 국적자로 분류하여 18세까지 조사한다. 2022년 서울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91%가 국내 출생이다. 전국 상황도 비슷하다. 이들의 수치에는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어 보이며, 서울의 외국인 주민 자녀는 국내출생, 귀화 및 외국 국적 모두 계속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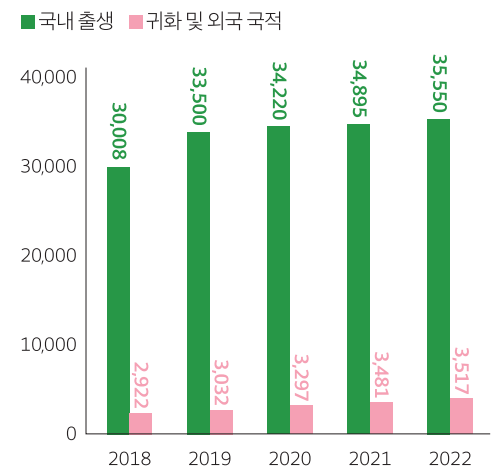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파악을 위한 또 다른 통계로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통계를 들 수 있다. 초중고에 재학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말한다. 서울시 다문화 학생 중 중학생, 고등학생은 2018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전국 통계에서도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2023년 전년 대비 약 3.5% 증가했으나 중학교는 약 9%, 고등학교는 약 21% 증가하였다. 서울 시도 초등학교는 약 2%, 중학교 약 6%, 고등학교 약 12%가 증가하여 전국 상황보다 증가 폭은 작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매년 유초중등 학생 수가 감소한다는 뉴스를 접하는 상황에 다문화 학생의 증가는 고무적이다. 그러나 서울시를 보면, 계속 밝은 전망을 유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2022년 서울시 초등학교 다문화 학생은 감소하였다. 2023년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2021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서울시 지역특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전국 통계에서도 초등학생은 감소 추세에 접어든 만큼 다문화 학생에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다문화 학생 가정 유형의 67%가 국제결혼가정으로 부모 중 한 명이 한 국인이다. 그러나 외국인가정이 33%이며, 국제결혼 가정 내 중도입국자녀도 8%인 점 등으로 볼 때 학교 현장의 다문화 학생 다양성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 외국인 주민(외국 국적+한국 국적) 연령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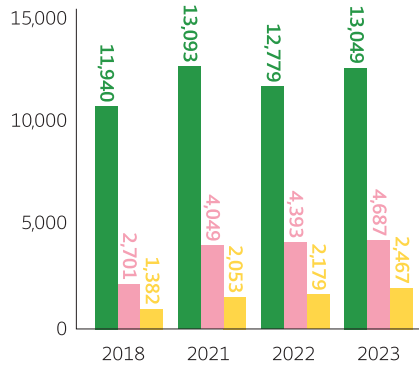
서울시 외국인주민 자녀



출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통계표 재구성(행정안전부)

서울시 다문화 학생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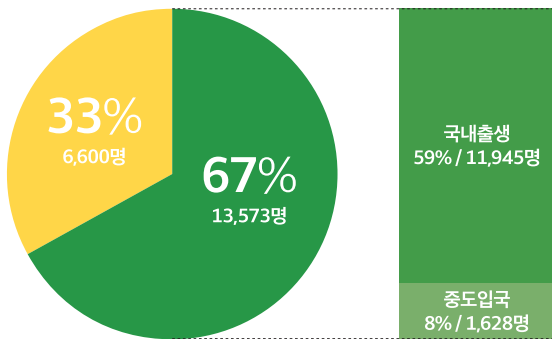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출처: 서울시교육청 “2023 간편한 서울교육통계”

가정 유형별 다문화 학생

■ 국제결혼가정 ■ 외국인가정



국내출생
59% / 11,945명

중도입국
8% / 1,628명

서울시의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현황

서울시는 2021년 외국인 정책에 약 380억 원 예산을 사용하였고, 2022년 약 460억 원으로 증액하여 집행하였다.● 서울시 다문화정책의 주요 사업 중 이주배경 청소년을 포함하는 것은 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 학습,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다문화가족 청소년 축구교실, 중도입국청소년·다문화 가정 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예비수험생 대학입시 현장 상담, 다문화가족 취업교육 프로그램,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장학금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등 상호문화 이해교육 지원, 외국인 유학생 글로벌 인턴십 운영, 외국인 주민 지원 시설 운영 등으로 볼 수 있다.

서울시 다문화 정책에 포함되어 다문화, 외국인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기관은 가족센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서울시이주여성상담센터, 서울글로벌센터, 서울외국인주민지원센터, 글로벌빌리지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있다. 이들 기관 모두 이주배경청소년 이용이 가능하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이 따로 마련된 곳은 가족센터와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다.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한국생활을 지원하는 곳으로 서울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한국어 교육,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홍보 등 자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문교육 서비스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과 언어 문제로 학교적응이 어려운 이주배경청소년이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 및 교육 지원이나, 재학 중인 이주배경청소년의 방과후 학습, 문화예술 활동 등 온전히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의 외국인 주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서남권(46.9%)과 동북권(23.7%)●을

●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1」, 2022. p.35.

들 수 있다. 서남권의 비중이 높은 만큼 대부분 외국인지원기관이 서남권에 위치하며,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도 서남권에 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의 불편함과 기관 이용의 어려움, 지역적 소외 배제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서울시의 동북권 기관 설립 필요성이 언급되었으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동북권에 민간기관이지만 글로벌청소년센터가 설립되어 무척 반가웠다.

중앙 차원의 공식기관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 진로, 심리적응 등 교육지원사업으로 레인보우스쿨을 전국에 운영하고 있다. 서울에도 2개를 운영하며 모두 서남권에 위치한다. 앞선 이유로 레인보우스쿨의 동북권 설립도 기대한다. 한편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은 서울시의 민·관·학 기관과 지원 관계를 형성, 연계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을 매개로 촘촘하게 형성된 연결망은 상호 협력을 통해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서울의 지역적 이점인 네트워크의 활발한 활용으로 서울의 이주배경청소년 정책이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서울시의 또 다른 주요 공적기관인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정책과 교육청 지원기관 현황을 살펴보자. 서울시교육청은 2012년 이후 ‘다문화 친화적’ 용어 사용을 통해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 조성은 “모든 학생이 문화적 차이를 수용하고, 이해하며,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이를 위해 물리적 환경 조성과 함께 실제 교사의 다문화적 인식과 역량, 학교 교육 과정, 학습 환경 등이 중요하다.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정책 실행 상황을 점검한 2022년 <다문화 친화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방안 연구>가 있다. 연구에서는 다문화 친화적 교육환경 조성이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고 지적한다. 특히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에 있어 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다문화 담당이 전문성과 무관하게 업무 분장이 이루어지고, 이후 업무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식이었다. 이주배경학생의 언어 지원, 학습 평가 등에서 학생의 언어적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거나, 학교와 학부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문제 등을 언급하였다. 이는 2020년 <서울시 이주배경 어린이·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 - 중도입국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지적되었던 문제다. 서울시 다문화정책 변화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무척 안타깝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보려는 서울시교육청의 시도로 마련된 지원기관이 서울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다+온센터>다. 2019년 서울 전체 다문화교육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소된 이 센터는 다문화 학생의 공교육 진입, 적응 지원, 다문화감수성 향상 프로그램,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 학부모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지원 체계 확립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교육청은 학교를 떠난 청소년에 관심

● 4) 행정안전부,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표」참고. 서남권은 양천, 영등포, 구로, 금천, 관악, 강서, 동작구를 포함하며, 동북권은 성동, 성북, 광진, 동대문, 도봉, 중랑, 노원, 강북구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다양성이 공존하는 상호존중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2021학년도 다문화교육기본 계획」, 2022.

을 가지지 않는데, 2020년부터 학교밖 이주배경청소년, 중도입국청소년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한국어 예비학교 형태의 ‘한빛마중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학부모 상담 및 교육 등은 공교육 진입 방법을 몰라 학교 밖을 전전하던 공교육 기관이 직접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학교 밖과 학교 내 경계를 허물고 연계하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서울의 다른 생활권으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 다른 센터의 설립도 필요하다. 관련 지역대학, 민간기관들과의 연계는 센터 확장이 어려운 경우의 대안일 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체계 구축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과제

글 서두에서 살펴본 서울시 이주배경청소년 현황을 통해 몇 가지 특징을 확인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이주배경청소년 규모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 상황이 동일하다. 이 문제는 우리사회 다양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부르는 명칭, 개념 정의에 대한 정리, 합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각지대 없는 이주배경청소년 규모가 파악된다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집행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 대비 19세 이하 비율은 8~9% 수준에 머물러 크지 않지만 20대를 포함할 경우 28~29%로 커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전국적 상황도 비슷하다. 또한 고등학교 다문화 학생 비중이 다른 학교급보다 가장 크게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10대 후반, 19세~24세 해당하는 후기 이주배경청소년 비중이 커짐을 의미한다. 후기청소년기는 취업·학업의 고민, 노동현장에서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로 이주배경청소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2021년 <이주배경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노동현장에서 이들은 비이주배경청소년보다 더욱 취약함을 알 수 있다. 후기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노동, 금융, 진로교육 및 직업훈련 등과 관련한 정책적 고민이 시급해 보인다.

또한 서울시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외국인가정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 비중도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 조사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재학율이 하락하였다. 학업중단 이유도 과거와 달리 그냥 다니기 싫어서가 1순위다. 답변자의 62%가 남학생이다. 답변자의 부모가 모두 외국계인 경우가 80%였고, 한국계 아버지와 외국계 어머니 즉 대다수인 다문화가족 출신이 61%였다. 10년 이상 지속한 서울시의 다문화 친화적인 학교환경 조성 정책을 심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 같다. 학교 다문화정책의 성공은 가정과 사회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학계 등과의 연계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

한편 사회의 만연하고 유해한 환경은 가정, 지역사회 등에서 습득하여 학교로 스며들기도 한다. 이러한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사례가 2021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나타난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 중 “성적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행동”,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 등의 피해”가 과거 조사의 경우 2.8%, 2.3% 수준이었으나 6.5%로 크게

증가하였다. 학교 내 성교육은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폭의 증가는 사회 전체를 돌아볼 문제이며, 학교의 성교육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학교 내 문제로 치부하고 해결하려 하기보다 지역사회 관련 전문기관, 교육청, 학교와의 연계 협력 노력을 통할 때 효과나 영향이 확산될 것이다.

서울시는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지역자원이 풍부한 곳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가진다면 다양한 지역자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주배경청소년 현안 과제에서도 지역자원 연계 협력을 통한 상생적 방식의 문제해결을 기대한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과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농촌지역 다문화가족의 특성

2000년대 중반 한국사회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등장으로 이민자의 존재가 부각되고 그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러한 움직임에는 도시에 비해 크게 낙후된 농촌의 현실, 그곳 주민들의 불편한 삶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개도국 출신 여성 결혼이민자들은 이민자로서의 적응 문제, 가족형성 문제 등 각종 어려움을 겪기 쉬우며 그로 인해 자녀의 성장도 결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만, 농촌 내에서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공적, 사적 자원을 동원하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배경청소년에 관한 정책은 이들에게 도움 될 만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에서 출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초기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만한 방문교육이야말로 물리적 거리와 교통 불편 등으로 센터에 오기 어려운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자녀를 염두에 두고 고안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 농촌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지만, 과연 어디가 도시고 어느 곳이 농촌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이에 대해 통계에서는 동부와 읍면부를 각각 도시와 농촌으로 치환하는 방법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중 23.2%가 그리고 청소년기(만 9~24세) 자녀 중에는 29.8%가 농촌에 살고 있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중 영유아기에 해당되는 6세 미만 층은 30.1%, 초등학교 저학년 연령대가 20.2%다. 청소년기 연령층은 46.0%로, 그중 초등 고학년 연령층의 비중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는 2021년 당시 상황으로 시간의 흐름과 최근의 결혼-출산 추세를 고려하면 청소년기 자녀가 현저히 늘어나는 가운데 특히 중학교

김이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모 역할에 대한 그들의 고민을 공유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녀 세대에게로 관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yskim@kwidmail.re.kr

재학 연령대의 비중이 크게 늘고 고등학교 재학 이상 연령층 규모도 늘어났을 것이 분명하다. 2000년대 중반 영유아였던 자녀들이 이제 10대 후반~20대 초의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어느 나라에서 주로 성장했는지에 따라 정서 발달과 친구관계, 학교생활, 나아가 사회·경제적 진출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대부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국내 성장 자녀’로, 도시 다문화가족 자녀와 비교해도 국내 성장 자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외국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외국에서 성장하다 중도에 입국한 이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시와 비교해 농촌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으로서의 자긍심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우울감은 낮아 정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98.1%가 학교 재학 중으로 도시 다문화가족 자녀(89.9%)보다 재학률이 월등히 높은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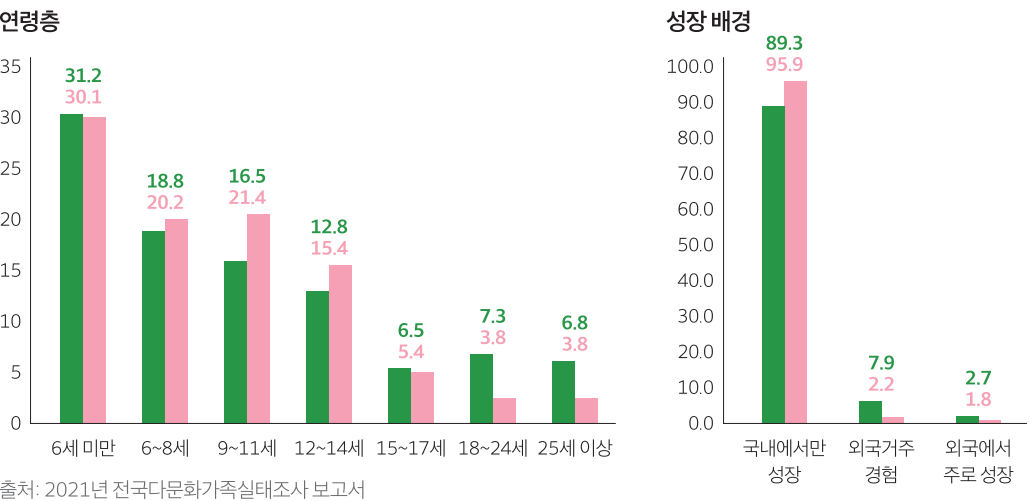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동시에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도시의 자녀들보다 성장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농촌지역 이민자들은 도시의 이민자보다 한국어 능력이 낮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서 자신의 역량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도시와 비교해 농촌의 이민자 부모들은 어린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가르치는데 어려움이 크고 자녀가 커가면서 학업·진로와 관련된 부모 역할에 한계가 있으며 자녀와의 대화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부모의 어려움은 자녀의 성장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농촌에 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는 도시 거주 자녀와 비교해 아버지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편이나 어머니와의 관계는 부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이 낮고 가정 내에서 이중언어 사용을 권장하는 환경도 잘 갖추어져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 거주 자녀와 비교하면 학교 재학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학교생활 적응도는 낮고 학업 성적도 낮은 편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3.7%)도 도시 다문화가족 자녀(1.6%)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학업과 학교생활의 어려움은 앞으로의 학업에 대한 기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교육 희망수준은 도시 거주 자녀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❶ 이러한 결과에는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층 구성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하다. 즉, 도시 다문화가족 자녀는 연령대가 높아 학교를 수료한 경우도 많은 데 비해 농촌 다문화가족 자녀는 학교 재학 연령대 비중이 높아 재학률이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층 및 성장 배경 분포(단위 : %)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위한 지원 방향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청소년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이주배경자로서 성장과정에서 공통의 과제를 공유하는 동시에 세부 집단에 따라 성장 과제의 질적, 양적 수준에 차이도 존재한다. 도시와 비교하면 농촌지역의 다문화가족 자녀는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학교 재학 비율도 높아 성장 과정에서 비교적 긍정적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학업의 어려움이 크고 학교폭력 피해 경험도 많은 편으로 학교생활이 원활하지 못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어머니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며 이주배경자로서 특수한 자질을 살리는 데 필요한 이중언어 역량을 키울 가능성도 높지 않다.

각종 지원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도 취·창업이나 진학·입시 관련 지원을 제외한 외국계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이해 교육, 학습 지원, 상담, 한국어 교육, 한국사회 적응 교육 등에 대한 요구는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가 도시 거주 자녀보다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지역사회 인프라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정책이 형성되는 데에는 농촌지역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존재가 중요하게 고려된 만큼, 부모 세대에 해당되는 결혼이민자·귀화자 가운데에는 농촌 거주자의 서비스 이용률이 도시 거주자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자녀 세대에 있어서는 농촌에 사는 경우 지원 서비스 이용률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가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지원 요구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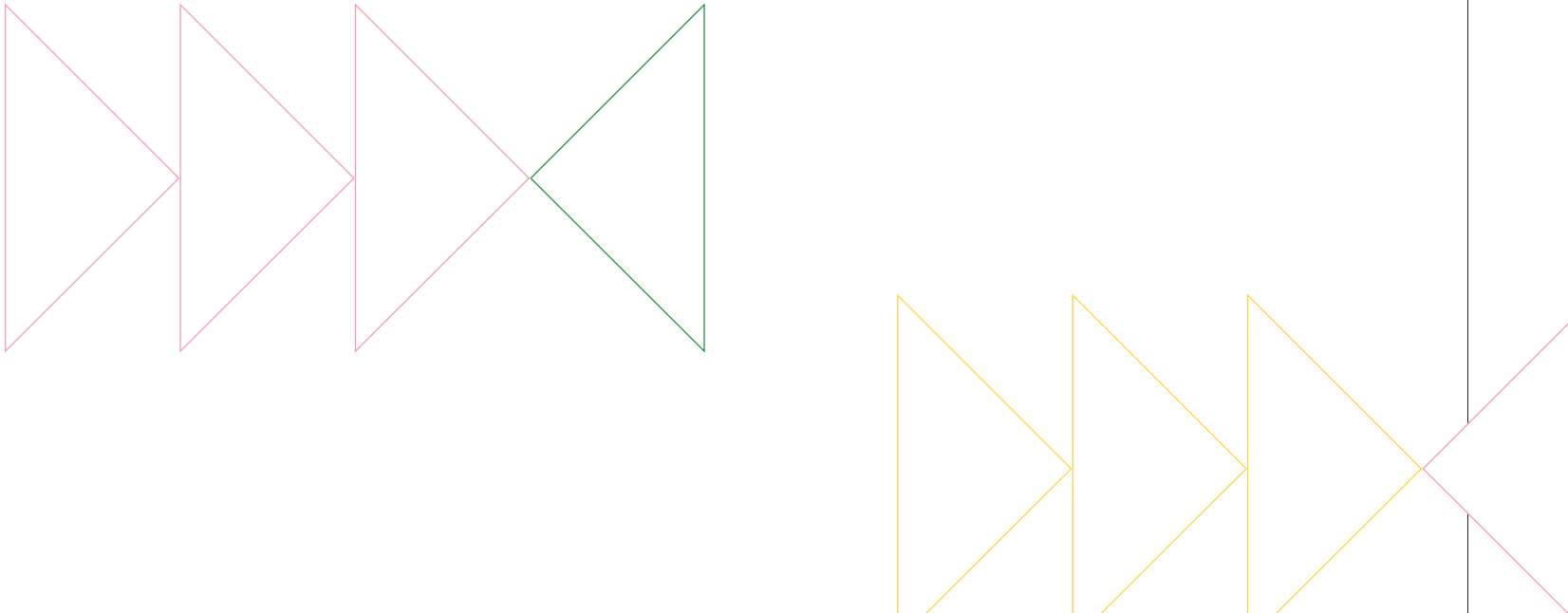
농촌지역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 중 36.0%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재 가족센터)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적이 있어 도시지역 자녀(15.9%)보다 다문화가족지

원센터 이용률이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지만, 지원 서비스 이용률은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결과는 농촌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에는 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지만, 청소년기 들어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지원은 받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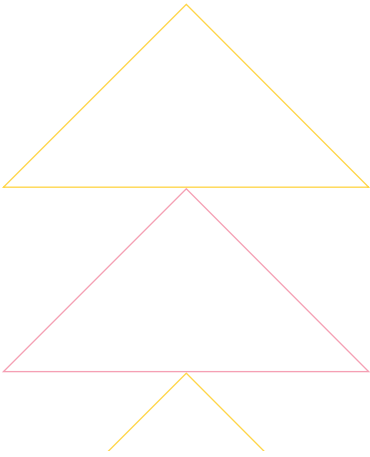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기존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는 영유아기 내지 초등 저학년 자녀에게 초점을 두는 데 비해 청소년기 자녀에 대한 접근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처럼 정부나 지자체 관련 기관 이외에는 서비스 공급 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한계가 청소년기 자녀들에게 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미 중고등학교 재학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기 자녀가 주류를 이루기 시작한 만큼, 영유아기 내지 초등 저학년층에 초점을 두었던 데에서 벗어나 청소년기 자녀가 학업과 학교생활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와 이중언어 역량을 증진하는 데 도움 될 만한 서비스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 중에는 소수이기는 하지만 중도입국 자녀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대다수가 국내 성장 자녀라는 이유로 정부나 지자체, 현장 기관에서는 국내 성장 자녀에 집중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데 비해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중도입국 자녀는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아닌 이주배경청소년의 존재는 더욱 가려지기 쉽다. 모든 이주배경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농촌지역에서 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모니터링과 대응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농촌의 특성상 사각지대 예방에 있어 마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높은 재학률을 고려하면 학업의 어려움,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관심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의 가족센터, 청소년기관 등이 청소년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서비스 전문성을 쌓아 학교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체계가 구축될 때 농촌지역 다문화가족 자녀의 앞길은 한층 밝아질 것이다. 🌟



충남지역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충남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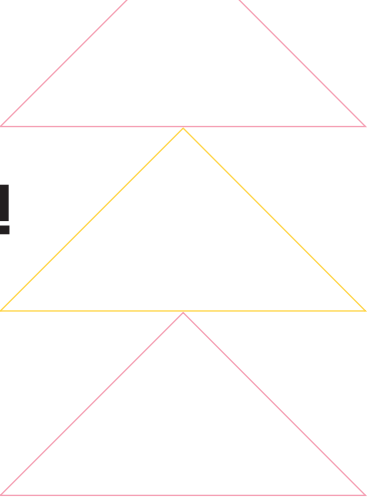
충남에 체류하고 있는 고려인 이주배경 자녀는 충남의 천안시 신부동, 아산시 신창면과 둔포면, 당진시 합덕읍 등 고려인 밀집지역에 주로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집단 거주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주로 고려인으로 러시아, 중앙아시아에서 이주해 온 자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의 자녀는 한국에서 출생한 경우도 있으나 부모와 함께 입국하거나 또는 부모가 먼저 한국에 온 후 안정적인 경제 기반 확보 후 입국하는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입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이주의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한국에서 부모와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청소년 중 중도입국청소년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어려움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부족 현상에서 나타나는 낮은 자존감과 또래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한국 입국 시 한국어 학습 등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코로나19 시기 입국한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은 부모가 일터로 나간 후 온종일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도 하였다.^❶

충남 이주배경청소년 현황

2021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 충남지역 외국인 주민 자녀는 2020년 기준 1만 5,927명이다. 국내 출생자녀는 1만 5,318명이며 귀화 및 외국국적인 경우 609명이 있다. 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 주민 자녀가 가장 많은 연령은 9세, 10세, 11세이



윤형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 외국인의 국내 체류관련 정책개발 및 지원
✉ yinxiangxi@cni.re.kr

❶ 전세경 외(202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충남 중도입국 자녀 돌봄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며 국내 출생 자녀의 수가 많다. 국내 출생 자녀는 9세~11세가 많고 귀화 및 외국국적 자녀의 경우 다양한 연령층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귀화 및 외국국적의 자녀는 여자가 57명 많고 국내 출생의 자녀는 남자가 여자보다 288명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충남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표 1] 충남 외국인 주민 자녀 현황

구분	귀화 및 외국 국적			국내 출생			합계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충청남도	609	276	333	15,318	7,803	7,515	15,927	8,079	7,848
0세	-	-	-	806	419	387	808	419	389
1세	11	8	-	900	442	458	911	450	461
2세	15	5	10	828	409	419	843	414	429
3세	22	10	12	863	414	449	885	424	461
4세	40	19	21	838	441	397	878	460	418
5세	37	16	21	895	445	450	932	461	471
6세	36	19	17	920	470	450	956	489	467
7세	26	15	11	951	472	479	977	487	490
8세	32	18	14	1,053	542	511	1,085	560	525
9세	42	21	21	1,157	596	561	1,199	617	582
10세	32	7	25	1,145	616	529	1,177	623	554
11세	38	16	22	1,131	573	558	1,169	589	580
12세	44	24	20	954	483	471	998	507	491
13세	33	19	14	854	440	414	887	459	428
14세	34	12	22	628	334	294	662	346	316
15세	50	23	27	476	250	226	526	273	253
16세	44	18	26	348	182	166	392	200	192
17세	34	15	19	296	138	158	330	153	177
18세	37	11	26	275	137	138	312	148	164

출처: 행정안전부(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연령별 현황(2021.11.1.)

❷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9세~24세 이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 자료에 따라 9세의 정확한 명수를 알 수 없어 본 자료에서는 10세 이상으로 나타내고 있음.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충청남도의 20세 미만 이주배경 자녀는 7,105명으로 10세 이상 청소년^❷은 1만 4,258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의 천안,

아산, 당진은 외국인의 체류도 많고 특히 재외동포 고려인의 체류가 많은 지역이다.

충남지역 외국인의 연령별 체류를 살펴본 결과 천안, 아산, 당진 순으로 많이 체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령별로 20~24세 연령이 1만 1,192명으로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고 0~4세 2,057명, 5~9세 1,982명, 15~19세 1,922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 지역 외국인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충남 지역 외국인 연령별 현황

시도	시군구	0~4세	5~9세	10~14세	15~19세	20~24세	총합계
충청남도	총계	2,057	1,982	1,144	1,922	11,192	18,297
	계룡시	0	3	5	2	14	24
	공주시	16	22	10	44	372	92
	금산군	18	10	9	75	647	464
	논산시	58	50	33	87	797	1,025
	당진시	173	149	67	135	511	1,035
	보령시	14	15	6	97	489	621
	부여군	1	1	6	12	156	176
	서산시	109	132	91	96	515	938
	서천군	3	1	4	5	162	175
	아산시	973	931	529	503	2,911	5,847
	예산군	33	31	20	26	190	300
	천안시 동남구	256	257	169	296	1,328	2,306
	천안시 서북구	357	333	168	437	2,415	3,710
	청양군	5	2	3	6	66	82
	태안군	4	10	4	3	118	139
	홍성군	37	35	20	98	501	691

출처: 법무부(2023), 2023년 9월 등록 외국인 지역별 연령별 현황

충남의 이주배경 자녀를 위한 다문화 강점개발 정책학교(이하 다문화정책학교)는 다문화유치원 33개원, 한국어학급 운영 초·중·고는 23개 학교다. 천안, 아산, 서산, 논산·계룡, 당진에서 다문화정책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각 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는 천안시 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 7개교 초·중등학교이며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아산시 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 11개교 초·중등학교로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1개교, 서산시 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 초등학교 1개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 3개교 초·중등학교로

초등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당진시교육지원청의 다문화정책학교 초등학교 1개교로 운영되고 있다.

다문화정책학교의 특징으로 다문화 학생 수가 아산시 둔포와 신창에 많은데 그 중 외국인 가정의 수가 국내 출생 자녀의 수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학급을 운영 중인 다문화정책학교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충남 초·중등 다문화 중점개발 정책학교 현황

교육지원청명	학교(기관)명	다문화 학생 현황			
		유형별 다문화 학생 수(명)			합계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천안	천안신촌초등학교	13	3	21	37
	천안신부초등학교	3	1	77	81
	입장초등학교	11	0	39	50
	천안서초등학교	22	9	43	74
	성환초등학교	33	3	45	81
	성환중학교	13	1	17	31
	천안북중학교	24	6	38	68
	관대초등학교	5	1	19	25
아산	둔포초등학교	15	11	235	261
	신광초등학교	43	4	73	120
	신창초등학교	0	0	313	313
	아산남성초등학교	67	3	125	195
	온양중앙초등학교	20	2	101	123
	온양용화중학교	3	1	30	34
	신창중학교	1	0	138	139
	둔포중학교	9	0	82	91
	아산테크노중학교	1	8	53	62
	온양용화고등학교	0	5	55	60
서산	차동초등학교	22	3	19	44
논산, 계룡	논산동성초등학교	44	2	35	81
	반곡초등학교	0	2	3	5
	충남인터넷고등학교	1	0	50	51
당진	합도초등학교	17	0	31	48
전체		367	65	1,642	2,074

출처: 충남교육청(2023), 다문화교육센터 2023년 다문화정책학교 현황 재구성

충남의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노력

충남지역은 아산의 둔포와 신창, 당진의 합덕에 고려인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아산의 신창초등학교는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외국인가정 자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재외동포가정의 자녀와 외국인 노동자 자녀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재외동포 고려인 가정의 자녀가 많이 체류하고 있다. 지난 8월 22일 신창면 제1회 주민총회가 실시되었는데 신창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함께 참여하였다. 총회의 내용은 외국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이들을 위한 생활언어 및 지켜야 할 규범·규칙 등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이었다. 이러한 교육은 아산시의 공모사업으로 신창외국인행복학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신창고려인청년모임을 함께 주관하고 있고 고려인이 잘 정착할 수 있게 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외국인에게도 주민으로서의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아산시와 신창면 주민자치회 그리고 아산시가족센터의 신창분원과 신창초등학교의 다문화돌봄교실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당진시 합덕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공장이 많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생활하고 있다. 특히 고려인의 정착이 많아 가족단위의 체류가 이루어졌으며 자연스럽게 고려인마을이 조성되었다. 합덕의 고려인 청소년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2021년 도담도담아동센터가 공립아동복지시설 전국 최초로 개소되었다. 도담도담아동센터는 합덕 거주 이주배경청소년에게 필요한 돌봄 지원 및 문화적 정서 지원이 되고 있어 이는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의 든든한 거주 여건이 되고 있다. 이곳에서 고려인 자녀를 위한 러시아어 소통이 가능한 한국어 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게 자리잡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삶을 위한 지원 필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지속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초기 한국 입국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이 한국에서 지속적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기초 단계로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생활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충남 체류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한국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강화가 요구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언어로 인한 장벽이 발생하게 되면 낮은 자존감으로 소외됨을 느낄 수 있다.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안, 아산, 서산, 논산, 당진의 경우 다문화정책학교에서 한국어교육 및 한국사회 이해를 통한 교육이 진행된다. 그러나 충남 15개 지역 중 5개 지역에 다문화정책학교가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경우 한국어와 한국문화 부족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다문화정책학교가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교육이 진행되는 하지만 다문화정책학교에서 진행되는 사항과는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있는 지역에 이들을 위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청소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고려인의 자녀로 한국인과 다른 모습,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에 따른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 고려인 이주배경청소년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부모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는 부모의 부재와 한국어 부족으로 낯선 곳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위한 심리·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선이주자를 활용한 이주배경청소년의 돌봄 지원이 요구된다. 먼저 한국에 정착한 고려인을 대상으로 다문화이해 및 이중언어강사 활동 지원이 요구된다. 현재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지역기관 및 돌봄센터에서 고려인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정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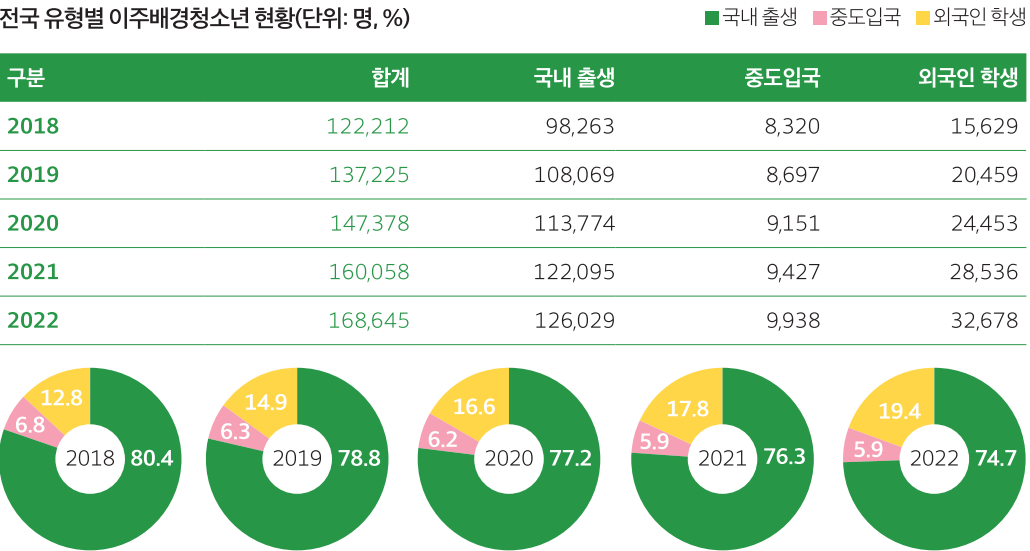
이주배경청소년은 본인의 이주 선택이 아닌 가족 구성원의 선택으로 이주를 하였기에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전남지역 중도입국청소년의 현황과 지원 방안

김경주, 전남여성가족재단 연구원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재직하며 국제이주, 다문화, 가족과 젠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 kyungjukim83@gmail.com

중도입국청소년 현황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데 비해 이주배경청소년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2년 전국 유형별 이주배경청소년은 국내 출생이 12만 6,029명(74.7%)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외국인 학생 3만 2,678명(19.4%), 중도입국 9,938명(5.9%)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학생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도입국과 외국인 학생의 증가세가 뚜렷하다.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전남지역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1만 347명으로 전체 학령인구 대비 비중이 5.7%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교육통계, 2022). 특히 중·고등학생에 해당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제결혼이 활발한 시기에 태어난 아동이 청소년기에 접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태어나 자란 중도입국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주배경청소년의 규모와 구성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들의 학습과 진로 지원에 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지역의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도입국청소년의 주요 특성

전남지역에서는 올해 이주배경 중·고등학생 378명(설문조사 365명, 면접조사 13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❶ 조사 내용은 일반적 특성, 가족생활, 학교생활, 진학·진로, 심리·정서, 지역사회 인식 및 정책 요구 등 6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주요 조사 결과, 국내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와 해외에서 주로 성장한 경우에 따라 언어, 학습, 진로 등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국내에서 성장한 이주배경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과 진로 선택에서 비이주배경청소년과의 격차 없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해외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청소년은 부모의 재혼, 새로운 가족 형성으로 가족 관계, 한국어 습득, 학업 수행 등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동질적인 집단으로 범주화하는 데에서 벗어나 성장 배경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최근 중도입국청소년의 증가세가 뚜렷함에 따라 선제적으로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도입국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출신 국가와 이주 연령 시기에 따라 언어 습득과 학습 수준의 편차가 크다. 또한 학교 편입학의 학적 생성 소요로 인한 학습 공백, 학교 입학 거절, 체류자격 문제 등 다양한 사례가 생겨나고 있어 한국 생활과 학교에 적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도입국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어 습득은 물론 학습 부진이 주된 요인으로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언어 및 학습의 집중적 지원이 시급하다. 한편 해외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청소년은 지역사회에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도입국청소년의 지역사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소속감을 높이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❶ 김경주 외(2023), 『전남 이주배경청소년 생활실태 및 성장지원 방안』 참고.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방안

중도입국아동·청소년 통합거점 지원센터 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의 어려움은 물론 새로운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편입학의 학적 생성 소요로 인한 학습 결손과 공백을 겪은 후 공교육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어 지원뿐만 아니라 학교 편입학을 위한 서류 준비, 심리·정서 지원, 귀화 및 국적 취득, 진로·진학 지원 등 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지역 내 가족센터는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지원 인력과 예산 등의 어려움이 있다. 결국 중도입국자녀가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공교육 시스템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레인보우스쿨과 같은 중도입국자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

학교생활 돌봄 전담인력 배치

해외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청소년은 한국어와 학교생활의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시·도교육청에서는 이주민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을 집중 지원하는 한국어학급과 징검다리과정을 운영하다. 하지만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리적으로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밀집도가 낮기 때문에 한국어학급을 확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오히려 입국 초기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더욱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출신 국가의 다문화이해강사 혹은 이중언어 강사를 활용하여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지원하고, 부모 및 교사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학교생활 전반을 돌보는 전담 인력 배치가 필요하다.

출신국가(문화) 청소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해외에서 주로 성장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본국에 있는 친구들과의 단절로 외로움을 호소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인터넷으로 모국의 음악과 영상을 통해 모국어와 모국문화를 접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모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며, 게임이나 채팅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관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출신국가(문화)별로 이주배경청소년들에게 온·오프라인 공간모임을 제공하고, 친구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커뮤니티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 더불어 지역의 외국 유학생들을 활용하여 출신국가에 대한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특화 ‘다솜형’ 직업고등학교 운영

중도입국청소년은 낮은 한국어 수준과 학업 성적 부진으로 고등학교 입학에 거절당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직업계 고등학교는 특성상 전문 용어를 사용하고 기계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우려한다.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교

육과정을 제공하여 취업과 진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지역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중도입국가정과 외국인가정 자녀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기업과 대학이 연계하여 지역특화 직업고등학교를 신설 운영할 수 있다.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은 충청북도교육청과 협력하여 2012년부터 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전국 권역 단위의 다솜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자 하므로 지역의 한국폴리텍대학교와 연계하여 지역특화 고등학교 운영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청소년 지원기관의 기능별 네트워크 연계 지원

이주배경청소년 전문기관을 별도로 설치하기보다는 지역의 청소년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각 기관의 주요 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족센터는 지역의 다문화가족의 정보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통합 거점 기능을 수행하고, 청소년 지원기관의 주요 기능별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하는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 지원기관은 심리상담(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여가·문화·진로 활동(청소년수련시설), 진학(진로진학상담센터), 다문화 교육 및 이중언어교육(학교) 등 각 전문 분야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지원기관의 각 주요 기능에 맞게 네트워크를 연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장 리뷰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네트워크

서원하 |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차장

용산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

곽윤정 | 용산교육복지센터 팀장

지역자원 연계사업 현황과 발전 방안

양경은 |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네트워크

서원하,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정책기획실 차장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며,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네트워크에서 연대하고 있다.
✉ sysmetrix@bwyf.or.kr

부천 이주배경청소년의 현황

부천시(2023, 부천시 통계)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0월 기준 4만 6,665명으로 부천시 전체 인구 대비 5.96%를 차지한다. 외국인 주민 수에는 이주 후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등록외국인'과 국내에 사는 곳을 신고한 외국 국적 동포를 일컫는 '국내거소자'가 포함되며, 부천시의 등록외국인은 2만 6,092명, 국내거소자는 2만 573명으로 집계되었다. 외국인들은 주로 심곡동(23%), 대산동(21%), 소사본동(16%) 순으로 전체 부천시 거주 외국인 중 절반 이상이 특정 지역에 밀집된 현상을 보인다.

이주배경청소년 또한 부천시에 꾸준한 유입 추세를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2022년 3,394명에서 2023년은 3,770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1%(376명)가 증가하였으며, 매년 300명 이상 증가세를 보인다. 경기도 지자체 간 비교에서도 경기도 전체 4만 8,966명 중 7.7%를 차지하는 등 안산, 시흥, 수원 다음 4번째로 높은 인원 비중을 차지하며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부천의 청소년 인구에 대비하여 두드러진 인구학적 특징을 보인다.

학교급별 다문화 인원 비중을 보았을 때 부천시 전체 외국인 거주지 통계와 비슷하게 심곡동, 대산동, 소사본동 인근 학교에 주로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통계의 경우 공교육 기관에 진입하지 않았거나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까지 집계하면 더 많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부천 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외국 국적 청소년을 포함하여 미등록으로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중도입국청소년은 법적 제도 및 인권 보호, 교육과 복지서비스 필요, 자립 여건 마련 등 복잡한 상

황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과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의 대표적 근거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조례)은 한국인과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유형의 이주배경청소년을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고, 지역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을 담당하는 주무부서가 명확하지 않고 파편적인 사업으로만 접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초기 정착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2023.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포럼(7월)





2023.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교육(11월)

부천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네트워크의 활동

본 네트워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부천여성청소년재단이 수행한 가운데 2021년 2월 16일, 지역 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을 위한 본과 네트워크가 구축되었고 시범사업이 종료된 2023년 11월 현재까지 매월 정기적인 모임으로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기관 간 효율적인 자원공유와 배분을 통한 사회서비스 효율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협력단체(기관)로 경기글로벌센터, 부천교육지원청,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부천미래교육센터, 부천새날학교, 부천시청소년법률지원센터, 부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어게인이 소속되어 있다.(가나다 순, 10개소).

네트워크의 주요활동으로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지도자 교육, 연구, 포럼, 자원 맵 제작 등 다양한 연대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다문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지도자 교육은 '이주배경청소년과 체류 자격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출입국 관리 정책, 비자 유형별 특성 등으로 체류 자격에 대한 기본 지식과 실제 사례, 비자 연장의 방법 등 실제적인 내용을 여러 관계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지역사회 공론화를 위한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포럼을 개최해 ① 이주배경 중도입국청소년 가족 환경유형별 거주 실태 ② 다문화대안학교 현장의 실제 ③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의 사례 ④ 부천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의 필요성에 대하여 나누며 알리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이주배경청소년을 만나는 현장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로 지역의 교육 서비스 정보 공유의 부족, 초기 정착을 돕기 위한 언어 소통의 어려움, 공교육 진입 절차의 어려움, 이주배경청소년의 비자 문제 해결의 어려움, 국적 취득의 문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심리상담 지원의 부족, 다양한 교육 콘텐츠의 부족과 일률적인 교육과정 진행의 어려움 등의 어려움을 말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국적과 사회적 배경으로

인한 차별 없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한 실제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연구와 포럼 사업을 중심으로 시의원과 간담회를 진행하였고,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

각 시설에서도 대산종합복지관,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등 외국인 밀집지역 복지관을 중심으로 한국어 교실과 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새날학교, 이주노동복지센터, 경기글로벌센터 등 민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중도입국청소년의 학습 및 정착 지원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여성정책과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주민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며 언어발달 및 한국어교육, 학습 및 진로 지원을 다문화 지원 정책 차원에서 접근하고, 아동청소년과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이주배경청소년 심리 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발굴하여 연계 협력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확대해 이주배경청소년들도 자율적 판단과 합리적 인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청소년임을 알리려고 한다. 단순히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으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의 특성과 욕구를 적극 수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지역 내 자원과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 ■■■

도움이 되는 링크

- ❶ 2021. 부천시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방안 실천 연구(부천여성청소년재단)
- ❷ 2022. 이주배경청소년 적응 지원을 위한 안내서_중국편(부천여성청소년재단)
- ❸ 2022. 이주청소년 적응 지원을 위한 안내서_베트남편(부천여성청소년재단)
- ❹ 2022. 이주배경청소년 적응 지원을 위한 안내서_필리핀편(부천여성청소년재단)
- ❺ 2023. 부천 이주배경청소년 인권포럼 자료집(부천여성청소년재단)

용산구 이주배경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

용산구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대한민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인은 2022년 224만 6,000여 명으로 전체인구의 4.4%를 차지하고 있다(출처:연도별 인구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21년 195만 7,000여 명으로 3.79%까지 감소하였지만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더불어 2022년 서울시 다문화가정의 학생은 2.4%(1만 9,351명)이고 용산구는 626명으로 평균을 넘는 4.4%를 차지하고 있다. 용산지역은 다국적, 다종교, 다인종의 25~30개국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이 배경엔 이태원지역을 중심으로 50개국(아시아, 아프리카 등) 대사관과 공관이 위치해 있으며 2023년도 이전까지 미군기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 최초의 이슬람사원인 한국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이 있으며, 주변에 아랍국가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매년 10월 용산구청 주관 이태원 세계 음식문화 축제가 열리며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녀가는 이유 중의 하나다.

이와 같은 용산의 지역적 특색을 바탕으로 우리 센터는 용산지역 교육 취약 학생(경제, 정서, 문화 취약 계층)과 다문화 및 이주배경아동의 학교 적응을 돕고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들이 겪는 (다른)외모로 인한 스트레스, 서툰 한국어에서 오는 또래갈등, 교사와의 관계의 어려움, 기초학력 저하 등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태원지역의 학교로부터 사례들을 의뢰받고 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교 적응,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이를 지원하고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통합지원 안전망이 필요하게 되었다.

곽윤정, 용산교육복지센터 팀장
용산지역의 교육 취약 학생 및 다문화 이주배경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돕고 지원하는 네트워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yseduwith0@naver.com

2020 서로만남

2020년 학교에서 의뢰받은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과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여 구청 '혁신교육'사업 예산으로 1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학교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주배경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받았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내 다문화 및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는 자문위원단 민간기관 2곳, 가족센터, 학교 2개 교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자문위원단을 꾸리게 되었다.

다문화 및 이주배경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인근에 거점기관을 만들어 찾아가는 1:1한글교실을 진행하였다. 부모의 한국학교 이해를 돕기 위한 부모교육도 함께 진행하였다. 다문화 학생 가정의 특성을 공유하고 학생의 효과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공유와 필요한 지원을 함께 이야기 해 나갔다. 2020년은 지역 내 이주배경 학생 지원에 대한 사업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한 해였다.

2021 함께어울림

2021년은 「용산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네트워크」 센터 주관 네트워크가 시작되는 해였다. 민간기관 3곳, 가족센터, 학교 1개교로 구성된 네트워크 모임이다. 연 3회 모임을 진행하였는데, 1차 모임에서 기관 및 학교에서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사업, 지원 가능한 자원들을 공유하고 나누며,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모임을 가졌다. 참여 기관이 갖고 있는 강점과 공유 가능한 자원을 목록화해 보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꾸려갈지 계획을 수립해 보는 시간이었다.

2차 모임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호소하는 주요 어려움, 욕구 등을 파악하며 실제적 지원이 시작되었다. 현장의 사례들을 함께 나누며, 협력의 의미를 더하게 되었다. 3차 모임에서는 문제해결 및 욕구를 반영하여 네트워크 구성 기관 간 필요한 공동사업을 논의하였다. 이로써 지역 내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지원 단체와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며 문제해결에 대해 서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해가 되었다.

2022 서로더함

2022년은 지금의 명칭인 「용산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로 모임이 진행되는 시기였다. 13개 기관과 3개 학교로 참여기관이 확대되고 협의회 횟수가 많아졌으며, 연 5차 모임을 진행하였다. 1차 모임은 서로 기관을 소개하고 기관별 갖고 있는 자원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신규 참여기관에서 이주배경 가족 지원 프로그램 '재난대응 보드게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2차 모임을 채웠다. 3차 모임에서는 이슬람권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 이주여성들이 직접 만든 아랍음식을 체험해보며 우리가 먼저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 4차 모임에서는 난민워킹그룹에서 발간한 '이주배경 초등학생 지원 안내서'를 함께 자문하며, 다양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었다. 5차 모임에서는 용산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사례 관리하고 있는 7개 기관이 모여 공동 사례관리를 하기 위한 목록화를 하였다. 더불어

주 사례담당 기관을 정하고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자원 목록화를 진행하였다.(이주 배경청소년 가족 대상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은 대상에 한함). 이를 통해 2022년은 용산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례기관이 자주 만남을 통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고 통합지원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23 함께나눔

2023년은 이주배경 네트워크 정착 및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기였다. 1차 상반기(1월~3월) 사례관리 회의에서 7개 기관 104명의 학생들을 공유하였다. 2차 모임에서 기관 간 새롭게 진행하는 사업과 공유 가능한 자원을 서로 나누었으며, 3차 모임에서 기관별 현황을 공유하며 공동사업을 제안하고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였다. TF의 구성은 즉각적인 소통과 이슈 발굴에 의의를 두는 계기가 되었다. 4차

2022 서로더함



모임에서 지난 3년간의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개최를 제안하며 공동사업 추진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5차 모임에서 하반기(4월~9월) 사례관리 명단을 공유하였다. 하반기 사례관리 대상 학생들이 75명이 증가되어 7개 기관 179명, 25개국 학생들 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현황을 함께 나누었다. 목록화된 자료를 각 학교 담당교사(다문화 및 교육복지 담당)에게 제공하여 학생사례를 지역기관과 함께 보고 있다는 안내와 주 사례담당 기관 간 즉각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6차 회의는 성과보고회 사전 실무 준비회의로 진행하였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는 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23 성과공유회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3시, 26개 기관 참여 36명, 주관단체 14개 기관 21명이 참여한 네트워크 성과공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1부 네트워크 사업 및 성과보고에서는 지난 4년간 추진한 네트워크 경과보고 및 연도별 진행 현황을 공유하였다. 이어 학교에서 네트워크 연계로 학생을 지원한 우수사례를 나누며 네트워크 안에서 학교와 지역기관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이주배경학생을 촘촘하게 돕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다문화 및 이주배경청소년 당사자들을 현장에 초대해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한국사회 및 학교 적응 사례, 변화, 인식, 더 나은 방안을 위한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귀한 시간이었다. 이주여성 합창단의 공연도 진행되었다. 1부 행사 종료 후 이주여성 대상 케이터링사업으로 그녀들 국가의 음식을 제공하였다. 바나나를 튀긴 튀론, 브리또, 치킨볼, 타마린드 주스 등 다양한 음식과 문화를 참여자들과 함께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2부는 모둠별 생각 나눔의 시간이었다.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행복, 안전, 즐거움, 정착, 함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네트워크 소속 16개 기관뿐만 아니라 이주배경청소년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 참여하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가족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견을 서로 나누며 성과공유회를 마무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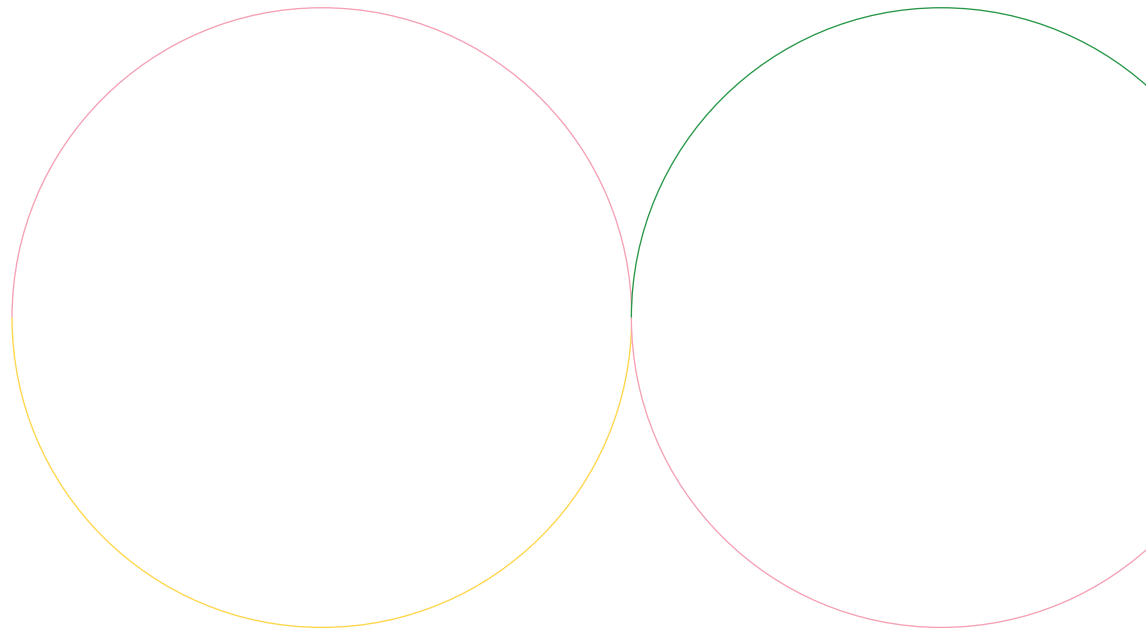
함께 할까요?

2023년 10월 1일~23일, 우리 네트워크 기관담당자들 대상 성과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중점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에 대한 정보교환이나 제공이 이루어졌다', '공동 사례관리로 기관과 함께 효율적으로 역할분담하고 협업하며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자립과 회복에 큰 도움과 지원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지역사회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며, 서로 함께한다는 공동체성을 많이 느끼게 되었다'라는 의미 있는 내용들이 나왔다.

제언사항으로는 '이주배경학생들 대상 다양한 영역의 지원(정신건강, 문화예술,

진로·진학 등)이 필요하다', '더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행정지원과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용산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과 가족 곁에 있다. 함께 더불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있다. '같이'에 가치를 두고 열린 네트워크로 함께 할 구성원들을 언제나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 우리 네트워크와 "함께 할까요?" 



용산구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및 가족지원 네트워크

- | | |
|--------------|---------------------|
| ① 갈월종합사회복지관 | ⑨ 오산중학교 |
| ②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 | ⑩ 용산경찰서 |
| ③ 더스페이스프렌즈 | ⑪ 용산구가족센터 |
| ④ 바라카작은도서관 | ⑫ 용산교육복지센터(중부교육지원청) |
| ⑤ 보광초등학교 | ⑬ 톡투미 |
| ⑥ 마리아주여성쉼터 | ⑭ 행복나눔재단 |
| ⑦ (사)피난처 | ⑮ 희망의 친구들 |
| ⑧ 성공회용산나눔의집 | |



위. 2023 함께나눔 / 아래. 2023 성과공유회

지역자원 연계사업 현황과 발전방안 - 시흥시 중심으로



이주민 밀집지역, 그리고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

이주배경청소년의 증가 추세는 학령인구의 감소 추세와 대비를 이루며 한국사회의 중요한 현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2017년 기준 20만 1,000여 명이던 이주배경청소년의 수는 2022년 28만 명으로 지난 5년간 약 8만 명 이상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이주민과 그들의 자녀가 국적이나 체류 자격을 중심으로 특정한 지리적 경계 내에 집중적으로 몰려 거주하는 이른바 ‘이주민 밀집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이처럼 이주민 밀집지역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들의 사업 중복 및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입국 초기부터 공교육 진입 지원,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도부터 경기 화성시, 시흥시, 경남 김해시를 선정하여 연계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했다. 2023년도에는 외국인 주민 수 1만 명 이상인 65개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여 경기 김포시와 전북 전주시가 추가되어 총 5개 자치단체가 사업에 참여하였다. 추진 체계는 여성가족부가 총괄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구조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등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의 유관 기관들과 함께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단위로 개입 방안을 모색한다.

어떤 연계인가?

‘기관들 간의 연계’와 ‘연계된 서비스의 제공’은 비슷한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둘 간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 개별 기관들 간의 단순한 집합이 될 가능성

양경은,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케나다 토론토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2023년도 시흥시 컨설팅위원 이주민 밀집지역 내 아동의 발달권,
다문화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한 연구를 해오고 있다.
✉ kyungeun.yang@skhu.ac.kr

을 내재한다. 반면, 후자는 서비스 수혜자의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누락 없이,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은 후자에 목적을 두고, 사각지대 없이 대상자의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적으로 민·관·학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유관기관들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정해진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기관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한 곳이나, 주관기관 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연계 사업은 단순히 상위 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받아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주민 밀집지역 시흥의 현황

시흥시는 인구 55만 7,663명 중 12.3%인 6만 8,482명이 외국인 주민으로 전국에서 4번째로 외국인 주민이 많은 대표적인 이주민 밀집지역이다. 외국인 주민 중에서도 한국 국적을 갖지 않은 중국 국적 동포가 외국인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 외국인 가정의 증가에 따라 다문화·중도입국·외국인 가정 학생의 교육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시흥시 다문화 학생 수는 3,673명으로 초등학교생이 2,757명, 중학생이 746명, 고등학생이 243명, 대안학교를 비롯한 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68명으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통계에서 파악되지 않는 19~23세 청소년, 미등록 체류자, 무국적자 등을 포함하면 정책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이들의 교육 및 한국사회 적응과 관련한 지원 필요도는 앞으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시흥시 다문화가정 학생 수(단위: 명)

구분		초	중	고	각종 학교	합계
전체 학교 수		48	24	17	1	90
다문화 학생 재학 학교 수		48	24	17	1	90
전체 학생 수		32,896	15,103	13,173	202	61,235
다문화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대비 비율)		2,575 (7.8%)	746 (4.9%)	243 (1.8%)	68 (33.6%)	3,673 (5.9%)
구분		초	중	고	각종 학교	합계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내 출생	1,277	346	89	96	1,808
	중도입국	137	64	29	2	232
외국인가정 자녀		1,161	336	125	11	1,633
소계		2,575	746	243	109	3,673

2022.4.1. 기준 KESS 교육통계서비스 통계 자료



좌. 민·관·학 실무협의체 제4차 정기회의의 모습(2023.08.09.) / 우. 실무협의체 교육 및 워크숍(2023.11.2~11.3.)

더욱이 시흥시 내 이주민 지원 기관들은 남부권(정왕동, 배곧동)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중북부권역에 이주배경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흥시는 올해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선정하고, 총 6차례에 걸쳐 민·관·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의 연계 사업을 활발히 추진했다.

시흥의 지역사회 연계사업 운영 현황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구성된 2023년도 민·관·학 실무협의체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참여기관 가운데 주관기관인 시흥외국인복지센터는 시흥시청과 더불어 연계 사업을 통합, 조정하는 허브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선 지역 자원의 편중에 따른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북부권역 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기관 115개를 새로 목록화하였다. 또한 민·관·학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며 위기 상황에 놓인 대상자를 신규 발굴하여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사업 참여기관들은 맞춤형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중언어교육, 고졸 검정고시반 운영, 심리상담 지원, 자립 지원, 건강 지원 등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였다.

[표 2] 시흥시 민·관·학 실무협의체 참여기관

구분	참여기관
민	외국인 및 다문화(2)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시흥시가족센터
	다어울림아동센터, (사)더불어함께(푸른지역아동센터, 아시아스쿨), 흥부네책놀이터, 성빈센터다문화가정센터, 함현상생종합사회복지관, 거모종합사회복지관,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시흥대야종합사회복지관, 시흥정왕종합사회복지관
관(3)	시흥시청(다·가치 유스센터 포함) 시흥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왕어울림청소년문화의집
학(3)	시흥교육지원청, 군서초등학교, 군서미래국제학교

올해 진행된 사업들 가운데 “모두의 마을” 자원 맵 구축 사례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지역자원 연계사업」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방식의 좋은 예를 보여준다. 주관기관은 참여 기관들과 함께 지역 의제를 발굴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민·관·학 실무협의체 운영 결과, 시흥시에 이주배경청소년과 관련한 자원이 흩어져 있으며, 이를 한 곳에 모아 파악하도록 하는 통합 정보 안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약 2개월간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고, 관내 17개 기관들을 방문하여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심리·상담, 건강, 사례관리, 진로, 통역 등 분야별로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안내하는 자원 맵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또한 시흥시는 1박 2일의 교육 및 워크숍을 기획하여 참여기관들 간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24년도 사업 운영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기관들 간의 신뢰도를 높이고, 연계 사업의 필요성 및 발전 방향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도모하였다. 워크숍을 통해 각 기관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느꼈던 경험을 공유하고, 공유 가능한 자원이 무엇인지 논의하면서 차년도에 함께 운영할 공동사업 아이디어도 도출하였다.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더라도, 막상 실천 현장에서 이를 적용하려고 보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용어에 대한 이해가 기관마다, 또 사업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연계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자원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 시설과 기자재의 교환, 인력의 파견이나 지원, 클라이언트의 공동사례 관리 모두 연계 노력에 해당된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주관기관, 그리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들 간의 신뢰와 적극성이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불어 각 기관들이 각자 맡은 고유 사업 외의 상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시흥시는 올해 연계 사업에 참여한 지 올해로 2년 차가 된다. 올해의 성공적인 사업 성과를 토대로 시흥시 내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체계가 차년도에 더욱 견고하고 촘촘해지기를 기대해 본다. 📍



시흥 관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합 안내하는 자원 맵 홈페이지(모두의 마을)

도움이 되는 링크 ×

① 시흥 자원 맵 홈페이지(모두의 마을) <http://www.modutown.or.kr>

발간번호 MYF23-16-개
펴낸곳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발행일 2023년 12월 15일
발행인 유기옥
편집인 이지은, 최병현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전화 02-733-7587
팩스 02-733-7586
홈페이지 www.rainbowyouth.or.kr
디자인 및 인쇄 더디앤씨(thednc)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4길 20, 이음빌딩 2층

Tel. 02-733-7587 Fax. 02-733-7586 Homepage. www.rainbowyouth.or.kr